

116. 제도를 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한마디 &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에 준 나의 선물.

2015.08.26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 내 사랑아, 나는 너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신경 쓰고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해. 지금은 시험의 시간이지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모든 각각의 사람들과 나는 함께 있어. 나를 오용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들이 너무 절망스러워할때 나는 아파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에게 제공해줘.

그 때가 다가오는 동안 나는 너희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히 주의를 기울였으면 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는 더 많이 보낼 거야. 하지만 먼저 나를 기다려라. 믿을 만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지 말아라. 실제로 사기꾼들이 있고 그들의 조작적인 생활방식을 지원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진실로 필요한 사람들을 나는 돌볼 거야.

그리고 주님은 성경구절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8장13~15절.

내가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면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나누어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넉넉하게 사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그들도 넉넉할 때에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서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도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클레어) 그리고 그 순간에 저는 주님께 질문하였어요. 그들 자신을 보살피지 않는 나태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나는 그들 안에서 일하고 있어. 나는 그들의 마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나 그들 자신과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재앙을 허용할 때가 올 거야. 하지만 재앙이 닥쳐도 나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어.

나의 종들은 아주 적은 것으로 사는 법을 배웠어. 나는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제공할 거야. 왜냐하면 그들의 의제는 나의 의제와 같고 나에게 순종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그들이 그들 자신을 돌보라고 내가 계속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될 거야. 정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은 그들을 높은 위협에 빠뜨리는 거야. 나의 자녀들아, 장애가 없고 아프지 않는 너희들, 정부에게 거짓말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원을 자신의 부정직하고 게으른 생활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너희들, 너희들은 휴거 후에 남겨지게 될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너무 늦기 전에 지금 회개하라고 요청해. 너희들에게 시간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고, 만약 너희들의 삶의 진지한 변화를 내가 본다면 이 죄 많은 속임수를 용서하고 휴거때 너희들을 데려갈 거야. 하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너희 자신이나 너희들의 가족을 허위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휴거를 기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클레어) 저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 겁먹을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양심적이지만 쉽게 거짓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는 ‘주님, 제가 이것을 명확하게 해도 될까요?’ 라고 주님께 여쭙보았어요.

(예수님) 그래.

(클레어) 네 여러분, 주님은 합법적으로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어 진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여러분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고 정부를 속여서 자신의 몫 이상을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대부분은 이미 삶에서 정직함을 선택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고 무력한 사람들인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부와 다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속여서 그들의 노력 없이도 그들 자신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단지 하지 않아요.

은행에 5천만원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 몇 대를 가지고 있고, 주식을 가지고 있고, 비싼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정부에게 식량 지원 등을 호소하면서 그 제도를 몇 년 동안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부류에 있는 사람이라면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 회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일할 수 있고 그들이 정말로 장애가 아닌데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장애를 신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 회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나는 연민을 가질 사람에게 연민을 가질 것이고, 자비를 가질 사람에게 자비를 가질 거야. 하지만 나는 빼앗고 거짓말하는 것에 지원하거나 축복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호소해. 너희들의 방식을 고쳐라.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해. 너희들의 주변사람들을 돌보아줘서 고마워. 천국에서의 너희들의 보상은 클 거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해. 너희들은 너희 주변사람들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야. 너희들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거룩함을 증명하고 나의 자비의 대사들이 될 거야.

너희들은 나의 왕국에서 매우 소중한 역할을 해. 너희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자비로워지는 것을 가르쳐. 너희들은 거만한 사람들에게 겸손해지는 것을 가르쳐. 너희들은 부자들에게 연민을 가르쳐. 너희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의 삶에서 이러한 상황을 허용하였고,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사람들의 경멸과 조소를 견딜 수 있도록 준비시켰어.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게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처럼 되는 것을 너희들에게 허용하였어.

나는 나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고 내 안에서 너희들의 정직과 자비, 그리고 의로움은 천국에서 너희들에게 큰 보상이 될 거야.